예향 통권 300호 기념 기획

인상 깊었던 명사들의 인터뷰
매력적 이미지로 사랑받은 표지들

특집

역사와 추억 스민
충장로는 살아있다

광주일보사〈월간 예향〉2020년 10월(통권 300호) 등록번호 광주동, 바00011 / 1984년 10월 1일 창간